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 누가복음 2장 21-35절  
(Tag:제자,제자도,성령,성탄절,누가복음,신약성경,제자의정체성)

21 할례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22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4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 또 같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눅2:21-35)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의 주인공들은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므온이라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 (랍비?; 혹은 제사장? 아니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요셉과 마리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치루게 되는데, 어린양을 한 마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정결예식을 치루게 되는데 남자 아이일 경우 난지 40일이 지나면 정결예식을 치루어야 한다.(여아는 80일)

그래서 마리아가 정결예식을 치루러 갈 때 장자를 드리는 예식을 함께 치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것이다.

보통은 어린 양으로 예식을 치루나, 가난한 사람들은 짐비둘기 두 마리나, 산비둘기 두 마리로 대신한다. 어린양의 가격이 요즘 시세로 약 20만원 정도 하고 비둘기는 1-2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예수님께서서 가난한 사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침 시므온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있었나 보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에게서 아기 예수를 넘겨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언하였다.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 이 종을 평안하게 놓아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기의 부모는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아기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예언하였다.

-이 아이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망하게 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마리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포박한 말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것이라는 뜻.)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심.

-그러나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거나 진실하지는 않음.(오히려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는 경우도 많음. 사울이 바울되듯이)

-아무튼 결과적으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빛이 비추이는 듯이, 구원을 얻게 되며, 참되고 보람있는 삶을 살게 됨.

-물론 그에 못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임. 심지어 당시까지만 해도 의롭고 인정받고 있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정죄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적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다.

-왜냐면 그들의 회개를 위해 오셨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모습이다. 기독교인들이 희생해야 할 제목은 바로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면 세상에는 거짓된 말들이 더 소리를 높인다. 담대하되 겸손하게 소신껏 진리를 전하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손해를 무릅쓰고, 시간을 소모하며, 열정을 불사르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독창적이고 보람있는 제자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가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사람의 제자인지 모호해진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다고 성령의 제자이니 나는 내 멋대로 행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마귀의 제자가 된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가 따른다. 가장 먼저 그는 거룩하다. 성도가 거룩하려면 십계명 1,2 계명에 철저히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으며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참 거룩함이다. 종교다원주의는 거룩하지 않다. 그것은 듣기에는 좋고 매우 평화스러워 보이는 것으로 가장하지만,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과 속이, 하나님과 마귀가,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만하다, 독선적이다, 교리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혹시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을 통해서 다른사람을 무시하거나, 거룩한 것을 자랑하거나,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가 이런 잘못이 없이 비난을 받는다면 그는 올바르게 비난을 받는 것이니 상급이 따를 것이다.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은 결코 십계명 1, 2 계명을 어기지 않는다.

또한 세속적인 우상도 있다. 사람이나, 식구들, 특히 자녀 등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인간관계는 세속적인 우상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 다음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둘째, 경건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경건의 능력은 실로 대단하다. 경건의 능력과 모양은 사람마다 그 헌신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 각자 분수껏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은 경건의 강도를 높이는데 도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장성한 분량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경건의 기본이 갖추어진 사람이고, 기본이 잘 갖추어진 증거는 헌신의 강도가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건의 분량에서는 처음 되었지만 나중 된 사람이 있고, 나중 되었으나 처음 된 사람도 있다.)

경건의 기본은 십계명의 3,4번 계명에 명시되어 있다.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즉 경건의 핵심이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구체적인 경건은 예배와 기도와 선행이다.

경건의 성장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작은 헌신이 더 큰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순수함과 열정이 퇴색되지 않으려면,(경건의 젊음과 건강함과 감동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사람 앞에서 순결한 것이다. 성결하고 순결한 사람은 결코 맛을 잃지 않는다.

셋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를 말한다.

내가 사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과 성전을 파괴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내시가 되어 왕을 섬기는 신세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몸소 실천하면서 평생을 지냈다. 세 나라를 섬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충만한 삶을 살았다.

성령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시기를 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누리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지만 직장에서 만큼은 저 마귀의 자식 같은 사장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저 마귀의 자식 사장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직장에 취직이 된 것일수도 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일하게 신뢰를 주었던 다니엘처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